광주·전남 기초의원 39명 재산신고 누락

실명 공개 안돼 처벌 솜방망이

8억 상당 어머니 건물 신고 않기도
과태료·경고·주의 그쳐… 보완 시급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 39명이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2000만원 이상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와 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누락 의원에 대한 실명 공개가 안 돼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상준)가 지난 3월 재산을 공개한 구의원 68명과 유관기관 임원 4명 등 총 72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심의한 결과 총 2000만원 이상 재산을 누락한 구의원 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구의원도 2명에 달했다. 광주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누락한 구의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보완 조치를 내렸으며 5000만원 이상 재산누락 구의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했다.

전남지역 기초의원 32명도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락한 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의원의 경우 임대채무 45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B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예금 4000여만원을 누락했다. C의원은 지난해 심사에서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고서도 본인 소유의 예금 5000여만원을 또다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고 D의원은 어머니 소유 건물 8억여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번 재산등록을 누락한 의원 중 19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11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역의원(전남도의원)이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선 2007년 7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허위 또는 누락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산누락 신고 의원의 실명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시·군의회 재산등록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 교육을 강화, 불성실 신고자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생 자치

광주시·전남도 간부회의 들여다보니

강운태 시장 "'자스민 광주' 광주공동체 가치 담아야"

박준영 지사 "민원 처리 지연 … 공무원 티 내나?" 질타

◇광주=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주말 첫 선을 보인 '자스민 광주'에 대해 공연 전반에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며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영국 에딘버러 공연을 앞두고 연출자의 창작의도는 존중하되 광주의 대표 공연물이며 광주공동체의 가치를 담아야한다는 점에서 서둘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강 시장은 "시장 개인적으로 자스민 광주가 광주의 한을 씻어내는 것은 성공적이었지만 미래지향적인 부분, 즉 한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딘버러까지 가서 공연할 대표작품인 만큼 한을 씻어내고 희망을 주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결국 역사의 승리자가 됨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또 긴급구호 및 복지대책팀을 구성해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펼칠 것을 관련 실국에 지시했다. 강 시장은 "해당 구청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병원, 보건소 등과 함께 긴급구호 및 복지대책팀을 만들어 맞춤형 복지를 펼쳐야 한다"며 "생명 유지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기본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돈 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송에 대비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외 자본과 그들이 고용한 국내 최대 법률법인과 맞설 것도 주문했다. 그는 "민간사업자는 고도의 전문적 국제변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법인을 사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전제한 뒤 "판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가 있으나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공직사회 기강잡기'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박 지사는 4일 열린 실·국장들과의 토론회 자리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해도 한 달째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전해들었다"면서 "감사실은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해봐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티'를 내는 것이냐","예전 공직자들 근무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특히 "민원이 한 번 들어오면 해당 실·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실·국 이곳 저곳을 직접 돌고 있다"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공직자가) 뭔가 바라는 것, 즉 (뇌물이나 향응 등) 기름칠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복지나 신재생사업 등의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들은 민원인 볼멘소리도 많고 전화 응대 태도가 권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전남도립도서관 인원 채용과 관련, "도청내 9개 실·국별로 1명씩 뽑아 파견인력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책임자를 선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도서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남악신도시에 개관하는 전남도립도서관 근무인력 30명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도립도서관 근무 인력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개관을 미룰 수 없는 만큼 실·국별 인력을 차출해서라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도립도서관의 위상이 F1대회나 여수세계박람회와는 다른 상황에서 일반직은 경력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다, 도서관이 문화예술과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커 직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실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첫 공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귀환이 완료된 외규장각 의궤 5점을 4일 오전 박물관 수장고 유물포장실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외규장각 의궤류 중 의소세손예장도감 의궤의 한 장면. /연합뉴스

북한에 1000만유로 긴급 구호식량 지원

EU 집행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에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북한의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배급) 절차를 엄격히 모니터링하는" 등 전례 없이 엄격한 조건 아래 구호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1000만 유로(약 155억원)를 대(對) 북한 구호식량 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주로 북한 북부와 동부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주민 약 6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북한에서 주요 곡물 수확기가 오는 10월에나 돌아올 것이라면서, 근년 들어 식량생산이 가장 저조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긴급 구호식량 제공의 이유를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식량평가단을 지난달 6~17일 북한에 파견해 현지 식량난을 조사한 뒤, 이번 지원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泰 야당 총선서 과반수 … 첫 여성 총리에 잉락

탁신 전 총리 막내 여동생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태국에서 3일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며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푸어타이당은 이로써 군소정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 군소정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키로 했으며, 푸어타이당 총리 후보인 잉락 친나왓(44·사진)은 태국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됐다.

태국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9만800여개의 투표소에서 4730여만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의원 375명과 비례대표 의원 125명 등 500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을 실시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야당인 푸어타이당이 과반수인 263석을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투표율은 7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피싯 웨차치와 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16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군소정당인 붐자이타이당과 찻타이파타나당이 각각 34석과 29석을 얻었다.

선관위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투표 결과 검증 작업 등을 거쳐 최종 선거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선관위의 잠정 집계 결과가 확정되면 푸어타이당의 총리 후보인 잉락 친나왓은 태국 사상 첫 여성 총리로 등극하게 된다.

도시 빈민층과 농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푸어타이당은 군부 쿠데타로 지난 2006년 권좌에서 축출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을 총리 후보로 내세워 승리를 거뒀다.

잉락 친나왓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승리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우리는 선거 유세 기간 약속한 모든 공약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피싯 총리는 선거 종료 직후 "민주당은 야당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총선 패배를 시인하면서 "태국의 통합과 국민 화합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